



국산장갑차 보스니아내전 현장을 달린다

- 대우중공업 K-200 B/S요원 보스니아 현지 파견 -



◀ 말레이시아에 수출되어 UN군의 일원으로 보스니아 내전에 참전한 한국형 K-200 전투장갑차 기동력과 무기성능 등에서 우수성을 과시하여 각국의 호평을 받았다

대우 중공업이 지난해말 한국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한국형 K-200 장갑차(42대)가 말레이시아 UN군의 주력기동장비로 보스니아 내전에 참전하여 기동력과 무기성능등에서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A/S 요원 3명을 지난 1월 15일부터 한달여동안 보스니아 현지에 파견하여 K-200 장갑차의 Before Service의 임무를 수행하고 한국형 장갑차에 대한 UN군의 반응을 파악하여 귀국함으로써 장비수출국으로서의 신뢰성 증진과 추가적 수출전망을 밝게 하였다.

3명으로 구성된 A/S 요원들은 1월 15일 항공편을 이용, 한국을 출발하여 파리와 자그레브를 거쳐 4일만인 1월 20일 보스니아의 스플리트시에 도착하였다.

이 지역에는 UN군으로 참전한 말레이시아, 영국,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케냐군 등

이 주둔해 있었다.

말레이시아군은 200여명의 병력으로 지휘관인 '하심' 대령 예하에 정비중대와 기갑 2개 중대, 기계화 2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기계화 2개 중대가 우리가 수출한 K-200 장갑차로 장비되어 있었다.

보스니아 지역은 대륙성기후의 산악지방으로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25도를 오르내리고 있어 우리 A/S 요원도 말레이시아 병사와 똑같이 군복과 방한복,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행동하였다.

도착후 처음 A/S 요원들은 말레이시아군의 지휘관과 장갑차 조종수 및 정비요원에게 장비 점검 및 예방정비방법과 운용방법을 교육시켰다.

말레이시아군은 3월부터 1개월간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2월 2일 06시에 콘직지역으로 이동을 개시했다.

이동시 소대장이 탄 K-200 장갑차가 7.62mm탄에 맞았으나 차량과 인명피해없이 이동하여 우리장갑차의 방호력이 우수함을 입증하였으며, 이동로가 산악지역이라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커브길이 많았음에도 단 1대의 고장도 없이 도착함으로서 기동력이 우수함을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되었다.

콘직지역에 도착한후 장비점검결과 조종수의 미숙으로 산악커브지역에서 바위벽에 부딪쳐 우측일부가 파손된 장갑차 외에는 별이상이 없음을 보고 말레이시아군 중대장인 ‘아드커드’ 소령은 『전쟁지역에서까지 A/S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K-200 장갑차가 신장비이고 조종수도 교육이 부족하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이동한 것은 장갑차의 성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우리 A/S 요원의 덕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콘직 주둔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A/S 요원들은 주로 장갑차의 고장배제 정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사라예보 근교까지 수시로 들어가

▼말레이시아 UN군에 예방정비 교육을 실시하는 장면



▲현지에 파견된 A/S 요원(좌로부터 김인석, 오영수, 김홍복)

A/S 임무를 수행하고 출국 한달여만에 귀국하였다.

이번 한국형장갑차의 보스니아 내전 참전은 한국에서 개발한 K-200 장갑차가 보스니아 내전에 참전한 영국의 스킨피온과 위리어, 요르단의 M 113A2, 캐나다의 WAPC 및 말레이시아의 콘도장갑차등과 비교해 성능이 훨씬 뛰어난을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에 참전하여 그 우수성이 입증된 한국형 장갑차는 지형이 험한곳에서도 기동력이 뛰어나고 고장율도 낮은 뿐만 아니라 박격포등 장착 무기의 성능도 우수하여 말레이시아에서의 추가구매와 현지에서의 조립생산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일부 국가들도 구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출 전망이 밝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이번 B/S 활동을 통해 우리 국산 전투장비의 계속적인 수출증대가 바로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따라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방산장비의 해외수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94 싱가포르 에어쇼」에 한국관 개설

-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등 국내 항공우주산업 5개 업체 출전 -



▲ 최초로 해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출전하였다

'94 싱가포르 에어쇼(ASIAN AEROSPACE '94)에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체들이 한국관을 개설하여 항공우주산업을 소개하고 Marketing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항공우주전시회로서 올해에는 민수·군수 항공 우주관련 PRODUCT, SYSTEM, COMPONENT, SERVICE, AIRPORT EQUIPMENT 등이 전시되었으며 총 79개국 19,000여명의 항공우주·무역분야 전문가들이 참관하였다.

▼ 우리 업체가 최초로 참여한 싱가포르 에어쇼는 동남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사진은 야외 전시장)



올해 최초로 한국의 업체들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주도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한국로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참여하여 외국 BUYER 및 업체들에게 홍보 및 수출상담을 전개하였다.

해외 전시회에 우리업체가 한자리에 한국관을 개설하여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단체홍보를 통해 각국의 항공우주산업관련 종사자들에게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기존거래선을 강화하고 해외협력 가능업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에 특기할 것은 에어쇼 행사로, 現地에서는 프랑스의 파리에어쇼, 영국의 Farnborough 에어쇼와 더불어 세계 3대 에어쇼의 하나라고 자체평가 하였는데,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에어쇼 행사를 국가적으로 Event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업체가 참가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인 것은 앞으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가장 거대한 시장으로 아시아가 주목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삼성항공은 F-16, KTX-2 모형과 엔진부품등을 전시, 홍보하였으며, 1700여명의 내방객이 관람했다





▲대우중공업은 KTX-1, MK-30 헬기, Do-328 모형 등을 전시하고, 107개 업체와 협력사업을 협의하였다



▲대한항공은 항공 91, UH-60 모형등을 전시하고 제품 사진을 나누어 주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한라중공업은 DELTA-II 발사체 모형과 PAF Ring을 전시하고 해외업체와 협력사업을 논의하였다



▲한국 로스트왁스는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와 미사일 전자장치케이스를 전시, 홍보하였다

'93 防産 관련 논문중 우수논문 선발 포상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위산업에 관련된 논문중 우수 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이는 방위산업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의 실상인식 및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며,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의 기업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방산관련 우수논문 선발 포상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93년도 논문중 우수작에 국방대학원 재학중 이강민 서기관(국방부사업조정관실)이 연구한「우리나라 방위산업 한계 극복 방안」을, 가작에 국방참모대학 재학중 윤형노 연구원(국방연구원)이 연구한「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전 양상」을 선발하여 지난 3월 10일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본제도의 시행으로 학교기관의 방산관련 학술연구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明)

